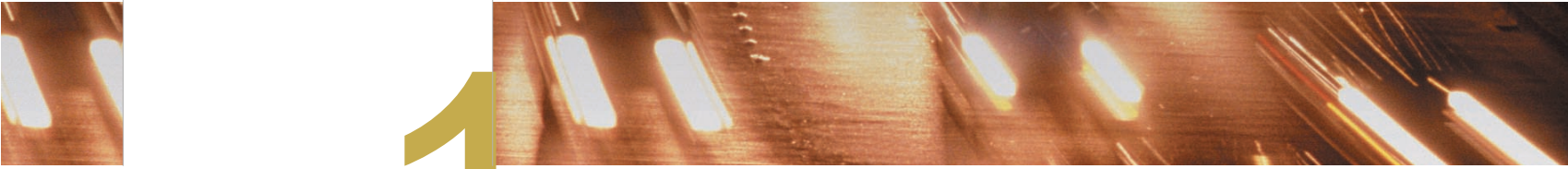




# 이제는 BcN 시대... 차세대 인터넷 견인

4개 BcN 컨소시엄이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BcN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BcN은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되는 환경에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국내 DC 업체들은 지금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했다. BcN이 DC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축되고 있다.

글 박현수 기자



# 1

## 새로운 서비스 발굴 초점... DC 성장 기대

BcN망 구축이 진행되면서 이제 사업자들은 이를 활용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4개 BcN 컨소시엄은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전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DC 업계에서는 시장 추이를 지켜 보며 관망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미 BcN환경에 대비한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글 박현수 기자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 통합망)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이제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비록 시범서비스망 이긴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보다는 BcN을 통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BcN 환경이 구축되면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10Mbps급 전송속도를 100Mbps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광대역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 기조는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BcN 구축에 따른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꾸준한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BcN은 성장률 둔화를 고민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장

비업체·IT업체·콘텐츠업체 등 다양한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콘텐츠 산업 또한 급팽창했다. BcN은 이보다 최소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킬러 애플리케이션 발굴이 업계의 지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HD급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IPTV·VoD·T거버먼트(T-Government)·T커머스(T-Commerce)·T러닝(T-Learning) 등이 킬러 콘텐츠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상에 불과한 것. 향후 어떤 서비스가 BcN에서 각광 받을 지는 아무도 선불리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BcN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KT·SK텔레콤·데이콤·케이블사업자 등 4개 컨소시엄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BcN 상용화 시대에 한 걸음 더 다

가섰다. 각 사업자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린 서비스를 시범 가구에 제공하면서 향후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 HD급 VOD·화상전화 킬러 앱 육성

옥타브 컨소시엄의 KT는 지난 10월 BcN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KT는 서울·경기·대전·대구지역에서 BcN 시범망을 구축, 약 600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KT가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로는 고품질 영상전화 기반의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IPv6를 이용한 원격영상강의, 유·무선 연동 영상전화, FTTH 기반서비스 등 총 30여 개에 이른다. KT는 현재 2,400만 명에 제공중인 유선전화서비스를 단계적으로 BcN으로 전환하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도 BcN에 통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데이콤의 광개토 컨소시엄은 지난 해 10월부터 1단계 사업을 준비해 왔다. 올해는 시범

가입자 모집, 시범망 구축, 서비스 모델 개발에 주력해 왔다. 데이콤은 HFC·FTTH 망을 기반으로 유·무선 통합서비스, 통신·방송 서비스,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 등을 시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4개 컨소시엄 중 가장 빠른 지난 7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데이콤은 TV 전자정부, HD급 케이블 VOD 등 25개의 융합 서비스를 서울·은평구·경기도 부천시·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의 350가구에 제공하고 있다.

데이콤은 1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2단계로 오는 2007년까지 IP멀티미디어서비스로 다양화하고 유·무선 액세스 기반을 확충해 BcN 상용화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데이콤측은 광대역망이 보편화되면 닥쳐올 가입자보다는 기관 및 기업 중심의 서비스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2단계 사업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유비넷 컨소시엄은 분당 파크뷰에 'BcN 시범서비스 체험관'을 개통했다. 유비넷 컨소시엄은 현재 유·무선 연동서비스, 통·방 융합서비스, 유비쿼터스형 응용서비스 등 총 4개군 32개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단계로서 BcN 핵심기술 개발, 시범 서비스 진행이 이루어졌다.

SK텔레콤은 고품질 화상전화 서비스, 멀티미디어 컬러링 서비스, 멀티미디어 레터링 서비스, 통합 메시징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장점을 살려 화상전화와 WCDMA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케이블 BcN'도 4개 컨소시엄 중 마지막으로 상설홍보관 개통식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케이블BcN은 12개 실시간 방송을 한 화면에서 확인해 원하는 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VOD서비스·인터넷 전화,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케이블BcN은 태광MSO·강남케이블TV·HCN·큐릭스·CJ케이블넷 등 총 700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케이블BcN은 방송사업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방송콘텐츠와 하나의 케이블TV 셋톱박스도 인터넷·방송·전화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플레이서서비스(TPS)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울 방침이다.

〈표〉 BcN 컨소시엄별 현황

구분	KT (옥타브 컨소시엄)	SKT (유비넷 컨소시엄)	데이콤 (공개로 컨소시엄)	케이블방송사업자 (케이블BcN)
주요 서비스	네트워크 PVR서비스, 실시간 VOD서비스, 양방향 e러닝 서비스, T커머스, TV폴, 정보 서비스, 영상전화, 멀티미디어 발신자정보, 맞춤형 음성다이얼, 멀티미디어 메시징, 양방향 교육, 게임, 헬스케어, 홈 시큐어, 비디오뱅킹, 영상회의 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RFID기반 서비스	DCATV 서비스, T뱅킹, 위성DMB, T커뮤니케이션, ICOD서비스, 모바일-IP TV연계 서비스, 영상전화 서비스, 가입자 정보 기반 서비스, 통합 메시징 서비스, 콘텐츠 푸시 서비스, IMS·소프트스위치 연동 서비스, WCDMA 영상전화 연동 서비스, 개방형 서비스(커뮤니티)	디지털방송, 데이터방송, HD급 VOD, T거번먼트, MoD, VolP, MMolP, MM메신저, MM CID, 원폰 서비스, 유무선 연동 MMolP 등	SD급 방송, 인터넷전화, VOD, 양방향데이터방송, HD급 방송, MMolP, TV책·신문(T-Book/Paper), TV전자정부, 지능형로봇(URC) 등
시범 서비스 지역	서울, 경기, 대구, 대전 600가구	서울, 분당, 부산, 대전 총 600가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등 350가구	서울, 경기, 대구, 제주 등 700가구
주요 참여업체	KTF, KTH, 삼성전자, 코어세스, 신지소프트 등 16개 업체	하나로텔레콤, 삼성전자, 대한전선, 스카이라이프 등 25개 업체	LG텔레콤, 파워콤, BSI, 다음커뮤니케이션, 유엔젤 등 16개 업체	KDMC, 디지털온미디어, 케이랩스, 전자부품연구원 등

이렇듯 4개 컨소시엄은 비록 시범서비스이기기는 하지만 망 구축을 통해 BcN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문제는 제공 서비스와 콘텐츠로 귀결된다.

현재 4개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로 대동소이한 편. KT·데이콤·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화상전화와 VOD 서비스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케이블사업자들도 TPS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

황이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는 현 기술 수준에서 구현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모두 상용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SK텔레콤측도 "2006년부터는 일부라도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며 수익 모델 발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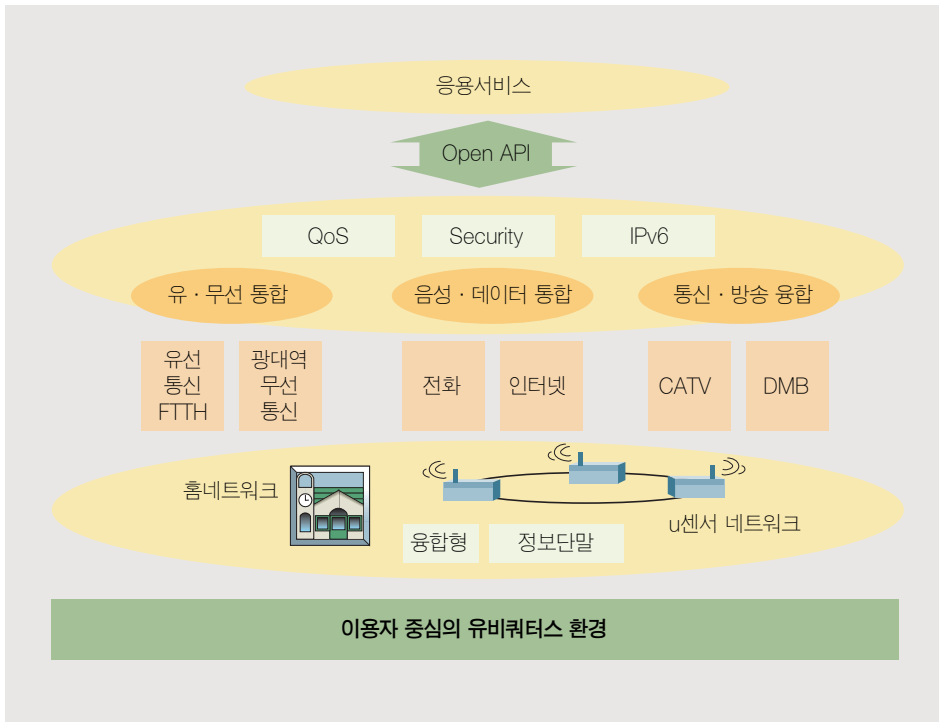
이들 사업자들은 영상전화와 함께 IP TV를

BcN의 핵심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지만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통·방 융합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핵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HD급 VOD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진전은 더디지만 한 상황.

데이콤은 최근 CJ코드와 제휴, 30여 편의 영화 콘텐츠 수급 계약을 맺었지만 사용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편

## 기획 I

(그림 1) 차세대 통합네트워크 구성도



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2003년부터 'HD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펼치며 BcN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HD급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을 지원, 이들 영상을 BcN 컨소시엄에 제공하고 있는 것. 변원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영상사업팀장은 "BcN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BcN은 현재 텅 비어 있는 집과 같다. 여기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법 양 틀바구니 속에서 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이 현재 안고 있는 고민. 이런 가운데 최근 EBS가 KT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e러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EBS는 KT와 함께 KT의 각종 서비스를 통해 EBS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종 신규사업 등 e러닝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BcN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원격강의 시스템, 화상전화를 통한 멀티미디어 어학실습 등 e러닝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EBS의 콘텐츠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재전송이나 VOD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 BcN망 활용 서비스 개발

BcN환경에서는 이에 걸 맞는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의 그래픽을 좀 더 화려하게 꾸미거나 다운로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BcN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숙제가 업체들에게 지워진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은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 별다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의 투자 여력이 미비하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고민은 거대 통신사업자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최동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기획관리실장은 "BcN은 아직 망의 보급과 서비스 모델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며 "이런 가운데 콘텐츠 개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이 우리나라의 IT나 콘텐츠 업체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듯이 BcN을 통해서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넷포털 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TV포털 사업을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해 왔다. 현재 다음은 데이콤의 광고도 컨소시엄의 멤버로 참여하며 일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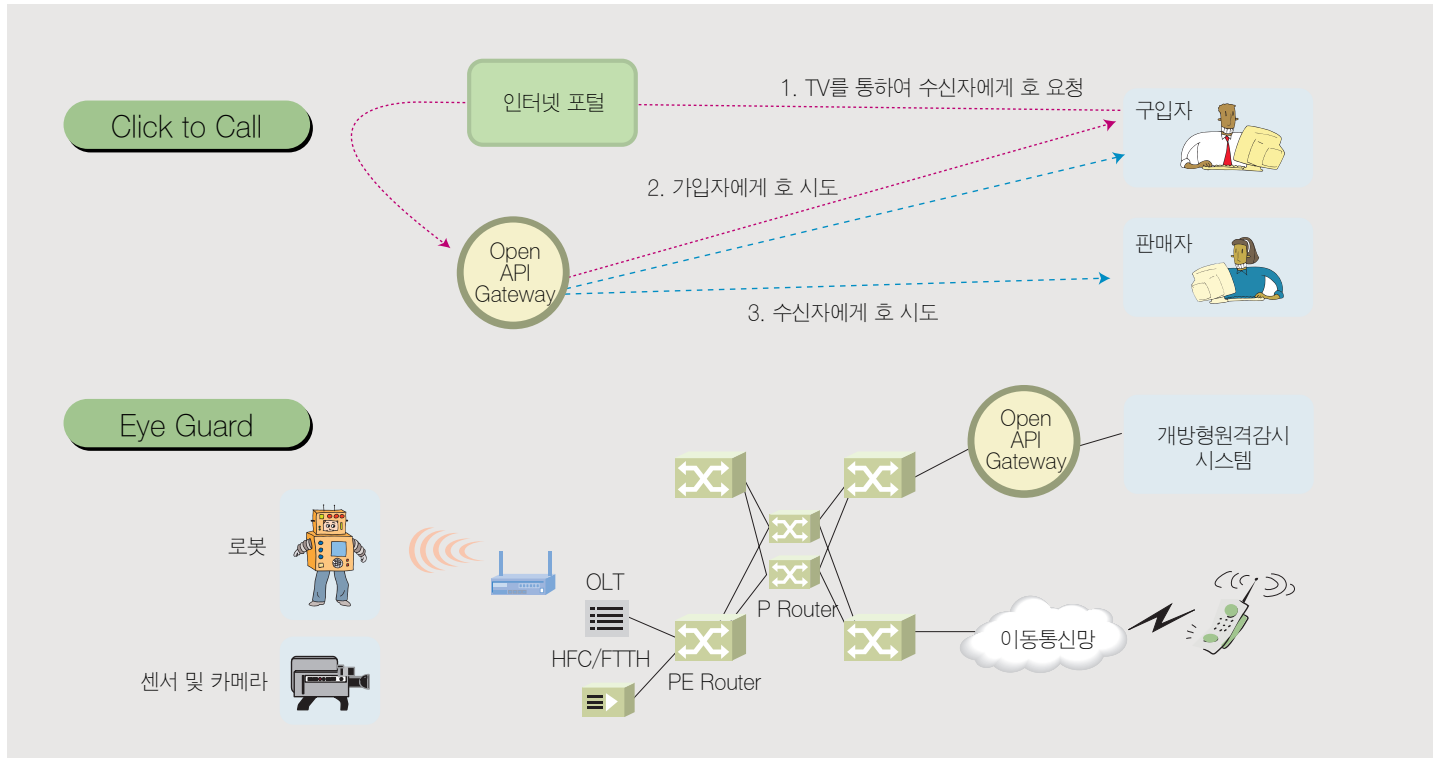
강형모 다음 신사업본부 TV포털팀 차장은 "광대역 망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매출과 부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 고민이 이어졌다. 기존 망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 이상의 것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서비스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은 방송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TV포털'을 주력 서비스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TV포털은 브로드밴드와 인터넷을 결합시켜 디지털TV에서 영화·게임·음악·잡지·미디어 정보 등 다양한 웹 콘텐츠를 쌍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주문형 최신음악서비스가 제공되어 오디오가 필요 없고, 3D기반의 X박스용 게임과 같은 비디오 게임이 거실에 공급된다. 또한 PC사용자와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을 TV를 통해 즐길 수도 있으며 TV와 전화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다.

TV포털 사업에서 다음은 타 포털 업체들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을 준비한 다음은 현재 서울을 포함한 4개 지역 아파트에서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 TV포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 CP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콘텐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게임유통사인 오베론미디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게임콘텐츠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래방 기기업체인 금영과 제휴를

〈그림 2〉 BcN 개방형 시범 서비스



자료 : 데이콤

맷과 TV포털 서비스를 통해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강 차장은 “다음은 유무선기기와 콘텐츠 결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소니의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기기인 PSP를 통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인 PSP(Daum in PSP)’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다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의 궁극적인 목표다.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책 시장도 향후 광대역망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이 한창이다. 전자책 전문 기업인 북토피아는 ‘전자교과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기존 교과서를 전자책 형태로 읽는 수준. 북토피아는 교과서를 비롯해서 참고서, 문제집, 관련 동영상 등을 담아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쯤

본격적인 서비스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교과서 같은 서비스도 학교 내 인프라와 맥내 인프라의 광대역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U-헬스’라고 불리는 통합의료서비스는 IT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의료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광대역망 구축이 보편화되면 더욱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난 2월 KT가 ‘U-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여 만성질환자 혈당, 심전도 온라인 측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U-헬스케어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단지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BcN은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BcN이 개방형

API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디지털콘텐츠 업체들로서도 BcN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개방형인프라 특성 살려야

장동만 ETRI BcN 개방형서비스센터 책임 연구원은 “BcN 개방형 서비스센터 개통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통신사업자들의 하부 네트워크 종류와 구성에 관계없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망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개발자들도 표준화된 통신망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다양한 융합서비스들을 쉽게 개발,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장 연구원은 “각 컨소시엄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서비스는 부족한 편이다. 향후에는 특정한 목적의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타깃 서비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콘텐츠 업체들도 이러한 망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2

## Open API... 차세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창출

Open API는 유·무선 통합 BcN환경에서 이용자가 망을 제어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심의 망 구축이 가능하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터넷 서비스는 기간망과 통합되어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무수히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융합 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이용자와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서비스보다 오히려 특정 대상과 특정 계층을 위한 서비스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글 장동만 ETRI 개방형서비스융용기술팀 책임연구원

**최** 근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IT839 분야까지 확산되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간망(유·무선망 및 방송망)들과 융합되어 컨버전스라는 개념으로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기간망과 통합된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기간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맞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기간망에 접속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기존에 네트워크에 접속하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인(직접 제어 불가)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창의적인 진정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간망의 자원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의의 전화 간 통화 연결이나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등에 대해서 기존에는 기간망에서만 제어 가능했으나, 웹포털에서도 제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개방형서비스(Open API) 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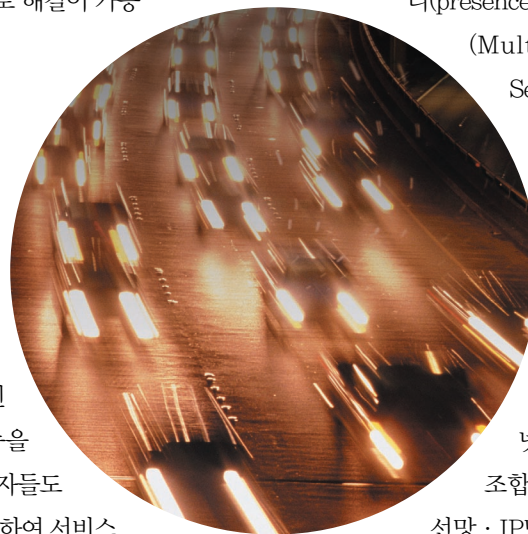
### Open API 기술

개방형서비스란 통신망의 자원 및 기능들을 개방형 인터페이스(Open API)로 정의하고, 통신망의 구조와 기능을 모르는 일반 개발자들도 Open API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류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사업자가 자신의 망 자원 및 기능들을 써드 파티(별정 통신사업자)들이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Open API를 제공한다. 현재 표준화 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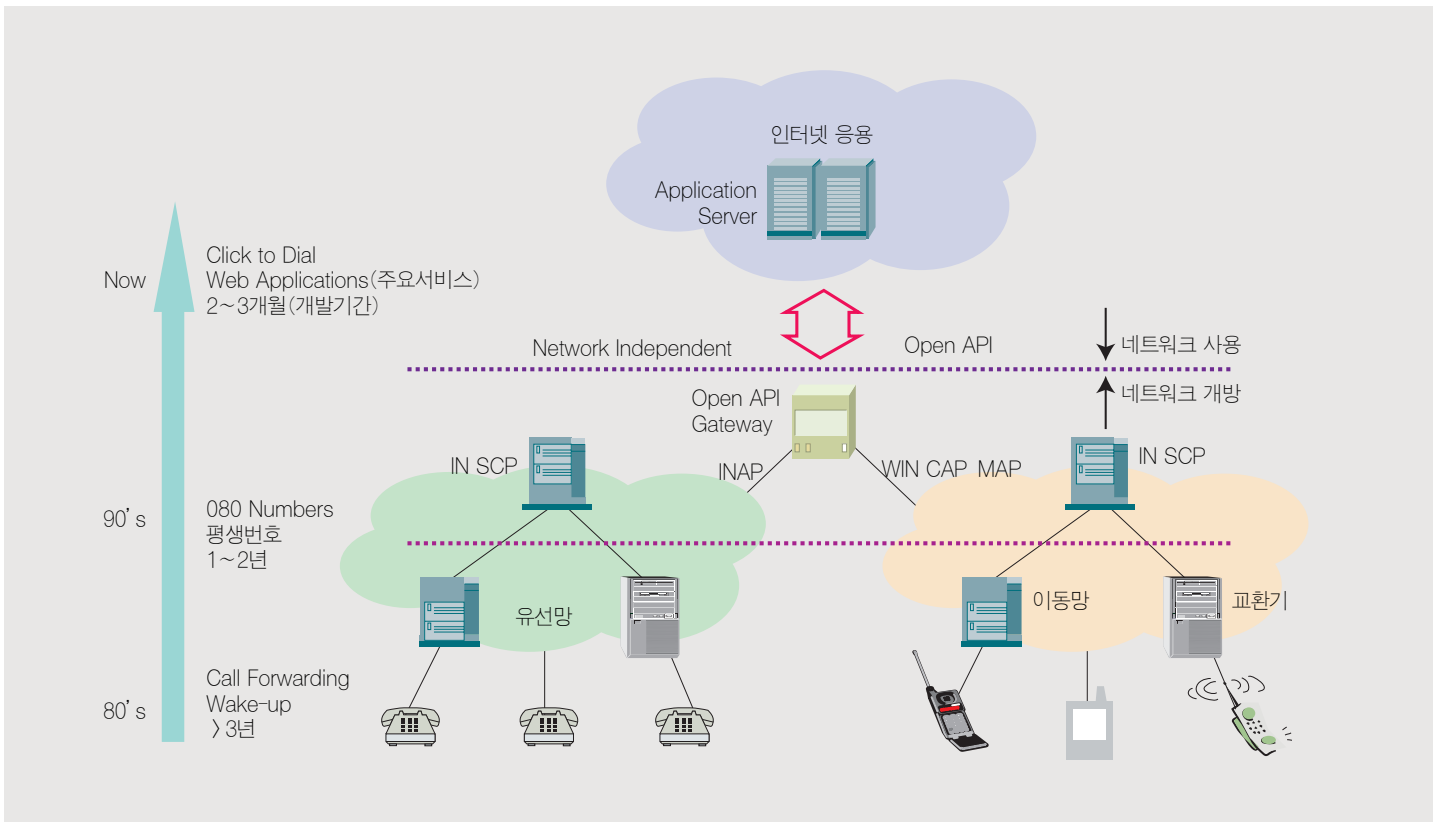
는 주요한 API들은 호 제어(call control), 호 통보(Call Notification), 이동성 제어(mobility), 과금 제어(charge), 프레젠스 관리(presence management),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단말 위치 파악(Terminal Location), 단말 상태 파악(Terminal Status) 등이 있다.

이렇게 기간망의 기능들이 Open API로 개방돼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개발은 API를 조합해 통신망(유선망·무선망·IP망·방송망 등)의 구조 또는 프로토콜 기술에 독립적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엔터프라이즈도 메인에서 개발된 웹 서비스들과 조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나아가, 개방형서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



〈그림 1〉 개방형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라 인터넷과 기간망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발도 용이해져 2~3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80년대의 통신 서비스는 호전환 서비스와 같은 아주 단순한 부가 서비스만 가능했다. 개발기간도 3년 이상 걸렸다. 그러다가 90년대는 지능망이 도입되어 080, 전국대표번호, 평생번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서비스 개발기간도 1~2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지능망 개념은 착신번호가 물리적·위치적으로 할당된 번호가 아닌 가상번호를 사용하고 서비스 로직을 처리하는 시스템(SCP)를 따로 두어 교환망을 제어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 후 지능망 기술이 Open API 기술로 발전했다.

또한, Open API 기술은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분리되므로, 누구나 타인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결합하고, 이중의 통신망을 통합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융합형 통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 유·무선망과 융합된 인터넷 기반 서비스

Open API를 이용하면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 통신망 가입자 간의 호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에도 〈그림 2〉와 같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웹포털 증권서비스에서 고객이 관심을 갖는 종목의 주가가 사전에 등록된 임계치를 넘는 시점에 증권회사 직원과 상담하기 위해 통화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웹포털에서 Open API인 makeA Call(고객 전화번호, 직원 전화번호)을 호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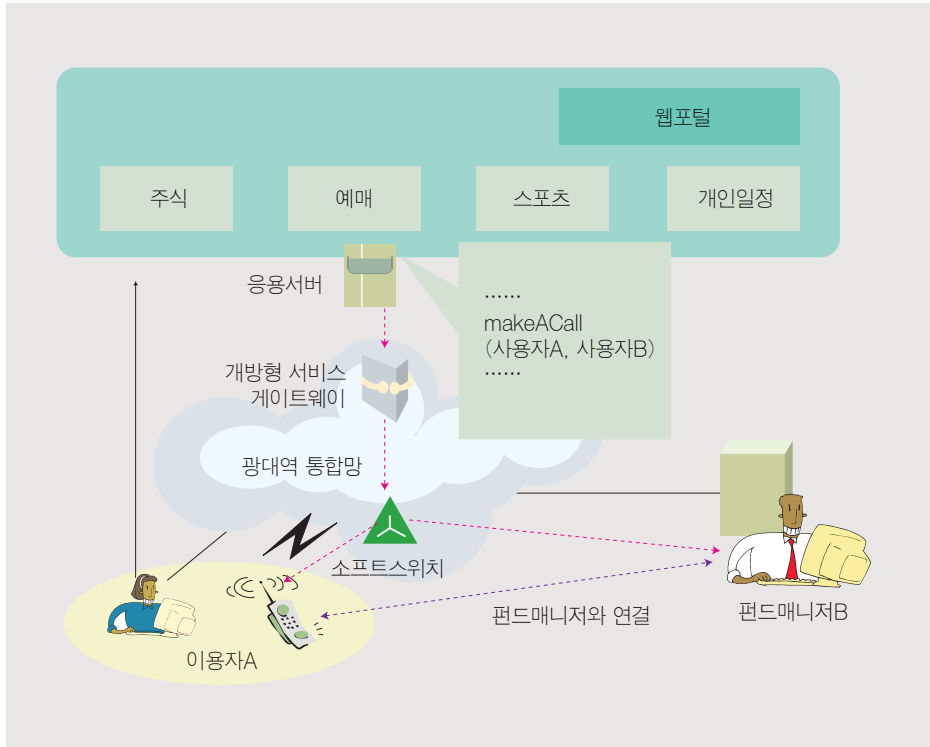
면 웹포털에 저장된 고객전화와 증권회사 직원 간에 통신망을 통해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듯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 통신망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방형 API의 궁극적 목적이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Open API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로 개발 가능한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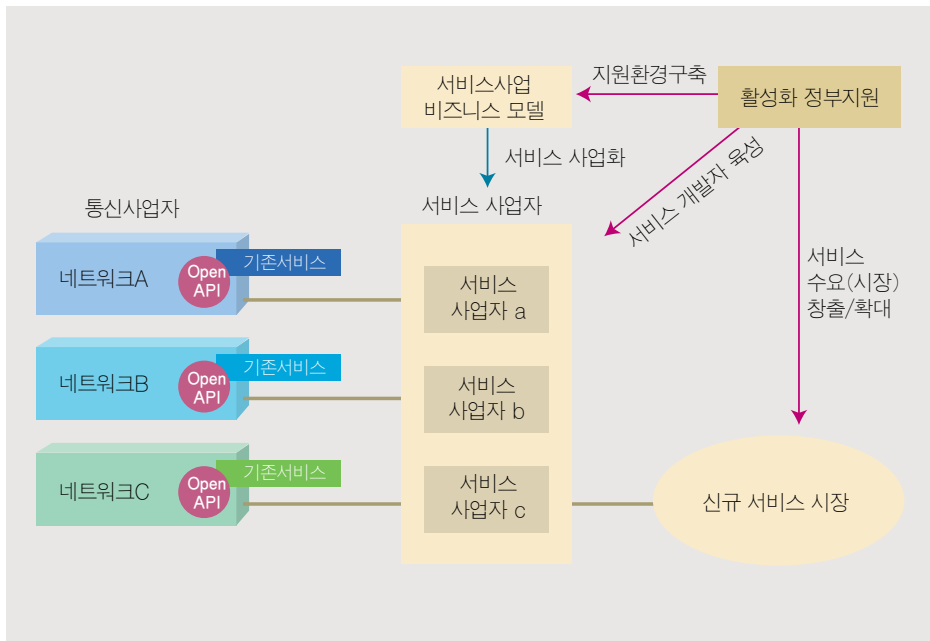
- 홈쇼핑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상담원과 전화를 원하는 경우 클릭 한번으로 고객과 상담원간에 통화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
- 인터넷콘텐츠 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휴대전화나 PDA 간에 손쉽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콘텐츠 서버에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우선 사항 정보에 따라 전자우

## 기획 I

〈그림 2〉 Open API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사례



〈그림 3〉 개방형 서비스를 통한 통신 산업계 활성화 구조



편·팩스·음성 전화 등 여러 통신 매체에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 해 음성·전자우편·메시지·웹 등을 통합한 다양한 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무선망과 유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로 야후, MSN 등과 상호 연

동하는 서비스

- 택시가 필요한데 근처에 택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서비스 업체로 '택시'라는 SMS를 보내면, 발신자의 위치에 가까운 택시 사업자를 찾아내고 발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줘 택시를 보내는 서비스
- LBS(Location Based Service)를 이용하

여 휴대전화나 사물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 웹 콘텐츠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웹 서비스나 인터넷콘텐츠 서비스에 있어서 유·무선 통신망 자원 및 기능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창의적인 인터넷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해소된다. 또한 개별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므로 네트워크 사업자 측면에서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트래픽이 증가하여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 인터넷 사업자 영역 확대

개방형 서비스는 통신망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개발자들도 표준화된 통신망 인터페이스인 Open API를 활용해 누구나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을 쉽게 개발하고 이를 사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는 서비스 사업자를 양산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업체의 고유 영역이었던 통신서비스 영역을 규격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로 개방함으로써 제 3의 서비스 업체 도입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

통신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통신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제 3의 서비스 업체를 수용하고, 이들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인터넷 기반의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발굴해, 이들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업 모델에서 통신업체는 킬러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제 3의 서비스 업체가 다양한 킬러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그림 3).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 개발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에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개인 정보 관리용 애플리케이션과 통신 기능들을 결합한 창조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